

동양 최대 안과전문병원 김안과병원



당뇨병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 중의 하나가 눈병이다. 또한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눈에 나타날 수 있는 안질환은 연령 마다 달라 다양한 이유로 안과를 찾게 되는데, 그 모든 안질환을 세분화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는 안과병원이 있어 찾아가 봤다.

안과 의학을 선도하는 김안과병원

40여 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안과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김안과병원. 동양 최대 안과전문병원이라는 제목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큰 규모와 전문화 된 진료시스템, 40여명의 안과전문의 등으로 그 의학적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 병원의 이계재 홍보실장은 “우리병원은 안과 질환별로 세분화 된 진료와 협력 진료를 통해서 최고의 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과전문의 39명과 내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전문의 6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뿐 만 아니라 최신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모든 안과질환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바쁜 현대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365일 연중무휴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어 환자 제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최대 규모와 최다 진료 실적

국내에서 이렇게 안과 하나 만으로 구성된 큰 규모의 전문병원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김안과병원은 지

상 8층, 지하 3층의 본관과 지상 6층, 지하 2층의 별관이 있고, 그 안에는 망막센터, 백내장센터, 소아안과센터 등의 각 분야의 전문진료센터와 수술실, 입원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방문하는 환자들 중에 가장 멀게는 제주도 등지의 지방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에 김안과병원 김성주 원장은 “지방에는 전문 의료병원과 시설이 부족하여 지방의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병원들과 협력진료를 시행하고 있어 직접 의뢰를 받아 진료를 하는데, 이러한 경로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편의를 고려하여 오시는 당일 모든 검사 및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래환자의 경우 2007년에만 40만 여명에 이르렀고, 연간 수술건수도 2007년도에 2만 건을 넘어서는 등 최다 진료실적과 수술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세부 전문센터로 운영해

사실 안질환 만해도 망막증, 백내장, 녹내장 뿐 만 아니라 사시, 시력교정, 다양한 안 성형 등이 있다. 각 질환 모두 전문 진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김안과병원에서는 각 분야별로 센터 개념으로 독립시켜 특정 안과 질환 One-Stop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망막센터, 백내장센터 등과 안외과, 안과외과, 안과외과 및 미용을 위한 쌍꺼풀 수술 등을 하는 안 성형센터, 소아안과, 라식센터 등이 있는데, 이계재 홍보실장은 “특히, 우리병원 망막센터는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망막센터를 설립해 다년간의 경험으로 체계적인 진료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의 망막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다 특화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세계최초로 망막질환만을 전문으로 하는 망막전문병원을 단독으로 설립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6월경 완공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별관에는 안과 외적인 질환의 진료를 하는데 그중 내과도 소속되어 있다. 당뇨병 및 그 합병증, 갑상선 질환 등 내분비 분야의 질환에 대해서도 진료를 시행하여 안과와 협진체계를 이루며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치료하고 있다.

아는 것이 곧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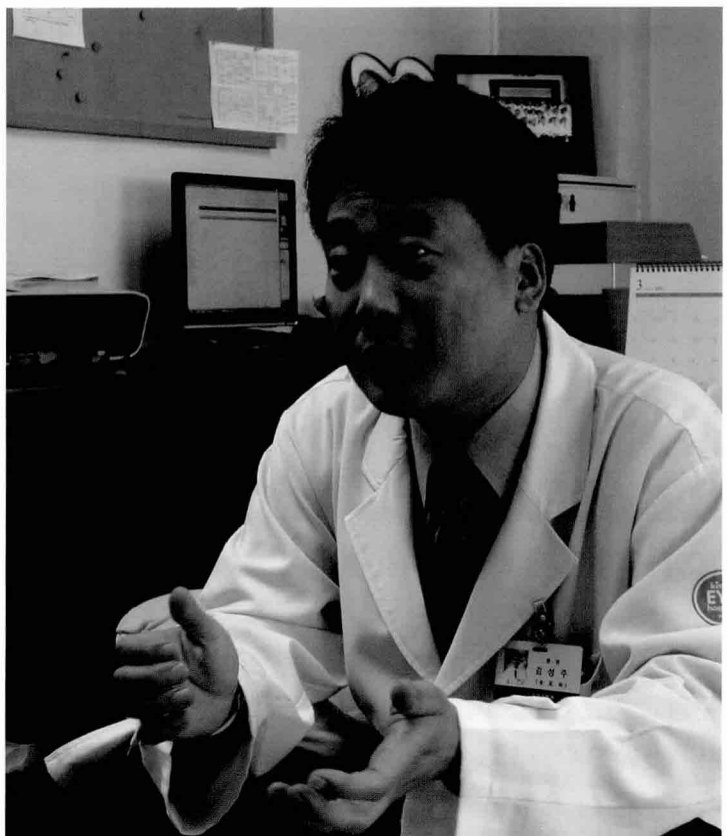
당뇨병환자라면 자신의 병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병에 대해서 알아야 예방도 하고 빠른 회복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것을 권한다. 다행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김안과병원에서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눈 건강강좌를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갖는다. 김성주 원장은 “요즘은 누가 의사이고 누가 환자인지 모를 정도로 질문들이 날카롭습니다. 그만큼 다들 건강관리에 적극적이시고 공부를 많이 하다는 것이기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 인터넷 등의 잘못된 정보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각 센터별 전문의들이 학술대회에 참가

하여 최근의 변화를 확인하고 병원 내 자체 연구소에서 직접 실험, 검증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와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정기적 검사는 필수!

모든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특히, 안질환은 특별한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며, 민감하지 않으면 쉽게 의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질병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병을 키울 수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야 한다. 이에 김안과병원에서는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경각시키기 위해 ‘해피아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Happy Birthday'의 'Happy'를 인용해서 생일 때마다 정기검진을 받자는 취지로 1년에 한번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눈은 내과 등 다른 질병과 달리 눈으로 검사만 해보아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5분 정도만 투자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 안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당뇨를 아는 순간부터 6개월의 한번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과 가장 연관된 증식성 망막증으로 인해 실명의 사례도 많기 때문에 모든 당뇨병환자는 혈당조절 및 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정기검진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김성주 원장은 예방을 당부했다. < >

글 / 광정은 기자



김안과병원 김성주 원장